

령장의 슬하에서 강군의 맹장들이 자란다

얼마전 성대하게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에서 첫 열병대로가 들고나가는 초상사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류달랐다.

공화국의 행로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7.27의 기적을 안아온 전승세대의 전열에 선 것이 바로 항일전쟁이 낳은 맹장들이었던 것이다.

항일의 맹장들 가운데는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군사교육은 커녕 군인으로 뒤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들이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으로, 능숙한 정치일군들로 자라났다.

혁명군대지휘관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항일투사 오종흠은 집이 너무 가난해 소학교나 겨우 나오고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유격대원이 된 사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쓰신 것처럼 그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가가 지녀야 할 당력과 용력을 키웠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인 7련대의 련대장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한물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오늘날 인민군대내에서는 그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오종흠7련대최초정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고있다.

끝없이 유하고 끝없이 역센 사람이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감회깊이 추억하신 항일투사 최춘국. 어릴적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산 그는 철도공사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천덕꾸러기였다.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은 날 그는 울상이 되어 자기가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는 정치지도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자신있는 일은 그제 왜놈과 그 앞잡이들을 죽이는 일뿐이니 평대원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고 한다. 바로 그러했던 그가 얼마후에는 온 남북민이 다 아는 당대의 이름난 항일맹장으로 되었다.

30살에 인민군대의 초대 총



참모장이었던 항일투사 강건도 16살에 혁명군에 입대한 사람이었다. 1948년말에 그가 쓰련(당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왔던 상대국의 대장, 원수급의 고위군사간부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낯 놓고 기 속자도 몰랐던 까마득한, 어제의 머슴, 농사꾼들을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항일맹장으로 되게 하였는가. 지난날의 까마득한 추억 푸르기를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속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선각자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키워진 것은 다름 아닌 빨치산대장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명장 밑에 약삭이 없다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을 알고 참된 삶의 길을 찾은 그들이었기에 항일의 나날 삼도매적을 벌벌 떨게 하는 맹장들로 자라나 조국해방이라는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왔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전략전술을 앞장에서 받

들어 아메리카의 장군들을 뛰어넘어 패전장군으로 만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의 적후활동에 주목을 돌리던 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은 이렇게 썼다. 『미군장성들은 상대방인 조선인민군 장군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비범한 령도자에게 의하여 유격전의 은밀한 전술을 체득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장군들을 신악하다 그것도 자기의 총심 깊이에 놓아둔 채 비행기와 전차를 트럭으로 하늘과 큰길을 따라 북으로만 전진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전진은 공허한 전진이 되고 결국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600여 리의 퇴로중 그 어디에서도 머무루 수 없었다. 위커자신이 기본전선과 멀리 떨어진 38°선에서 다름 아닌 인민군주력부대의 유격전에 의해 즉사하지 않았는가...』 적후제2전선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방침에 따라 배후타격으로 적의 등뼈를 꺾어놓았으며 놈들의 손발을 엮어매어 인민군주력부대로 하여금 일거에 공화국복반부지역을 해방하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 적

후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맹장인 최현이었다. 백두산 김대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빨치산출신 맹장들이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전략사상을 높이 받들고 능숙히 활용하는 기묘한 전법안에 적들은 얼마나 넋을 잃었던가. 정규전과 유격전,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의 리상적인 배합으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대연해방전투와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까지 어느 나라의 병서에도 없던 것이었다. 간혹 그 어떤

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항일투사 조정철, 미제침략자들을 락동강계선까지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 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는 서울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적들의 발악적공세를 좌절시키고 전국을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항일투사 최광...

진정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나 사상도 뜻도 오직 령도자와 함께, 사고도 행동도 오직 령도자의 의도대로 인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어 온 항일의 맹장들이 최후에도 중요한 초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었기에 공화국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에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 수 있었기이다.

오늘 공화국의 무장력은 세인을 경탄케 하는 강대무비한 힘의 실체들과 함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슬하에서 령장의 비범특출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익힌 담차고 슬기로운 맹장들이 대부대를 이룬 명실공히 최강의 무장력으로 각광을 모으고있다.

무적강군의 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장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신다면 항일의 맹장들처럼 직접 비행기와 땅크의 조종간, 함선의 조타를 틀어쥐고 반미대결전의 앞장에서 천만대오를 지휘해나갈 용맹무쌍한 룡해공군의 맹장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수의 아성, 악의 제국에 영원한 종말을 선언할 불같은 의지를 안고 화성포들의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해가는 전략군의 맹장들의 위용찬 모습은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령장의 슬하에서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란다. 천출맹장이 계시고 역센 자위의 힘을 갖춘 군대와 펄펄 나는 지휘관들인 맹장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강하며 적대세력들이 이런 공화국을 잘못 보고 또다시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손 지성

◎ 군력강화의 나날에 ◎

날 바다를 헤친 목선

주제101(2012)년 8월 어느날 신문을 펼쳐 들던 온 나라 인민은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7hp의 작은 목선을 타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 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찾으시었다는 보도가 전해졌기였다.

나라의 령도자께서 한층 바다에서 사는 배군들도 괴도사나운 날에는 선덕 띄우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서 검푸른 날바다길을 헤쳐가시나.

누구나 저러드는 마음을 달랠지 못하며 간절히 소원하였다. 이제 더는 그런 위험천

잘 짜인 협동작전으로

주제103(2014)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륭군,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을 지도하시셨다.

훈련장은 지심깊이 뚫어버린 웅양이 터져오르는듯 활활살같이 노호했다. 강철포신들에서 련속 날아가는 시벨진 불출기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낸 증기와 복수의 명중탄들로 하여 하늘, 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었다.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

몇해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싸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려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미싸일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함을으로 평가되었다.

발사 전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려

이런 불같은 신념을 안으시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기술적우세를 부르셨으며 이 땅을 초토화

우리 공화국을 시종일관 적대시하고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제와 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이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하신 승리 선언이 길이 새겨져있다.

인민군대가 적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즉시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 남해바다에까지 승전고성을 울려가던 때인 주제39(1950)년 8월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포성이 지척에서 들려오는 조국의 최남단 광주천가까지 나가시어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하루빨리 미 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세상에 제1강대한 나라를 제1으로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전진길을 걷고 또 걷고있습니다. 나의 전진길은 곧 승리의 길입니다.

이런 불같은 신념을 안으시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기술적우세를 부르셨으며 이 땅을 초토화

려고 발광할 때에도 주저없이 화선길에 나서시어 승리의 길을 명확히 밝혀주셨으니 바로 그 길에서 이 나라의 이름없던 성과 봉우리들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자랑높은 승리산, 승리봉으로 이름떨었다.

그때 벌써 공화국의 인민들은 절감했다. 위대한 령장의 화선길은 단순한 현시찰의 길이 아니라 승리를 안아오는 력사의 지름길이라는것을. 바로 이것이 불멸의 전승사가 확증한 또 하나의 진리이다.

공화국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그 진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확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사회주의보루인 공화국을 두고 적대세력들이 시간까지 놓아두고 《붕괴》설을 내뱉을 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멀고 위험한 전진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자주적인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주시였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라는 노래를 절절히 부르며 낮이나 밤이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전진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고 또 바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방에 나오시어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며 적진을 굽어보시면 적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는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오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화선길에는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은 경애하는 그이의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 그이의 걸음걸음은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화선길로 이어져왔다.

그 령에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한물 방탄벽이 되었던 5일간도 있었고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안으시고 떠나셔야 했던 화선길. 붉은 당헌증을 품으시고 걸음마다 침묵할지 모르는 약국까지 이어진 위민들의 불같은 령에서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만복이 펼쳐나고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장을 누벼간 위용찬 열병총대들과 천만대적이 덤벼든대도 배심든드에게지

을 질겁케 하는 희한한 주체병기들의 비행운이 만리장공에 새겨졌고 한해를 십년, 백년맞잡기로 비약하는 건설신화, 력동과 변혁의 년대가 이 땅위에 펼쳐졌다.

위대한 아버지의 화선길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원의 대재앙과의 결전장에도 이어졌으니 태풍이 휩쓸는 수도의 거리를 몸소 운전대를 잡고 헤치시며 길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그 길, 위험천만한 립시철다리를 건너 아직 감탕이 채 가지지 않은 돌서덜 진창길도 주저없이 찾아 인민을 안아일으키신 사랑의 그 길, 언제 악성병마가 침습할지 모르는 약국까지 이어진 위민들의 불같은 령에서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만복이 펼쳐나고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장을 누벼간 위용찬 열병총대들과 천만대적이 덤벼든대도 배심든드에게지

는 주체병기들,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경국의 광장을 이채롭게 장식한 공화국인민들의 약동하는 그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에 의해 행성의 중심에 초대강군으로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의 진도습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말한다.

이 세상 그 어떤 격난, 그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두렵지 않다.

이 지구상의 제국주의때무리들이 다 덤벼들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따라 새로운 승리와 번영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원 은 미

